

## 형사소송법

### 2014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건설업체 사장 A는 시청의 관급공사 입찰에서 떨어지자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경쟁업체 사장 甲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비리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시청 건설과 과장 乙에 대한 뇌물제공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甲의 노트를 발견하고 경찰관 P에게 건네주었다. P는 그 노트에 甲이 乙에게 수차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점으로 가서 주인 B로부터 甲과 乙이 수차례 주점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B에게 영업장부의 확인을 요청하여 甲이 대금을 지불한 내역이 기재된 부분의 복사본을 넘겨받았다. 이에 P는 입찰비리에 관한 조사를 이유로 甲에게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甲이 경찰서에 출석하자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공판정에서 甲은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乙은 혐의를 부인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 1) 경찰관 P가 甲을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한가? (10점)
- 2) A가 경찰관 P에게 건네준 甲의 노트는 증거로 할 수 있는가? (15점)
- 3) 경찰관 P의 요청에 따라 B가 제출한 영업장부 복사본은 증거로 할 수 있는가? (15점)
- 4) 공판정에서의 甲의 자백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가? (10점)

제 2 문. 甲은 2013.7.10. 22:30경 A의 집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절취(범죄사실 ①)하고, 같은 해 8.1. 23:00경 B의 금은방에 침입하여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범죄사실 ②)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甲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甲만이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범죄사실 ①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사실 ②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검사만 무죄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 ①에 대하여 상고하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범죄사실 ②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가? (10점)
- 2) 甲만 유죄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 ②에 대하여 상고하고 대법원이 범죄사실 ①과 ②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은 범죄사실 ①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는가? (10점)
- 3) 甲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고 대법원은 범죄사실 ①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환송한 경우, 항소법원은 甲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할 수 있는가? (10점)



제 3 문. 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관련 증거를 찾기 위하여 甲의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를 검찰청 사무실로 옮겨온 다음,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검색하여 혐의관련 파일들을 복사·출력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검사 S가 행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10점)
- 2) 검사 S가 파일을 검색하던 중 관세법위반 관련사실이 기재된 파일들을 발견하고 임의로 그 파일들을 복사·출력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수사인가? (10점)

##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장

